

호송차로 향하는 박영수 전 특검

등록 2023.06.29 15:29:15



[서울=뉴스시스] 김진아 기자 =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(영장심사)를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. 2023.06.29. bluesoda@newsis.com

